

공금을 학생 개인 계좌로 … 학과, “해결 방안 마련할 것”

연극 트랙 ‘추가 등록금’ 논란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국제】 예술·디자인대학 연극영화학과 연극트랙의 ‘추가 등록금’이 개인 계좌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극트랙은 전공 특성을 살려 타 과과 졸업논문, 졸업시험을 보는 것과 같은 맥으로 ‘졸업공연(정기공연)’을 진행한다. 정기공연에 참여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다. 문제는 정기공연을 위해 연극트랙 학생들은 등록금과 별도로 매 학기마다 ‘공연제작실습비’를 내야한다는 점이다. 한 명이 내는 액수도 매 학기 28만 원, 8학기 총 224만 원에 달한다. 4년 간 정기공연에 1번만 참여하는 사람도 224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공연제작실습비를 8학기에 거쳐 나눠 걷는 이유에 대해 연극트랙 학생회 김현실(연극영화학 2014) 회장은 “한 번에 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내기에는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4년 동안 나눠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금전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재학생들도 이러한 점에는 공감한다.

다면, 졸업을 위한 공연에 사용되는 공금이 학생회장 개인계좌에 보관하는 점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이번 졸업공연을 총괄하는 씨어터오픈장 김태윤(연극영화학 2015) 씨는 “재학생이 90~100명 정도로 한 학기에 2000만 원 후반에서 3000만 원 초반까지 걷는다”고 밝혔다. 이 액수



는 학교 본부도, 과 사무실도 아닌 연극트랙 학생회장의 개인 계좌로 입금 된다. 김 회장은 “한 때는 등록금 고지서에 ‘추가등록금’ 명목으로 공연제작실습비를 냈지만 학교에서 걷으면 세금을 내야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액수를 줄여들었고, 제 때 쓸 수 없어 학생들의 사비로 메꾸고 후에 돌려받는 문제들이 나왔다”고 학생회가 현금을 걷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학민(연극영화학) 교수 또한 “원래 학교에서 돈을 걷었지만 사용의 불편함이 제기됐고, 학생 요구를 수용해 학생회에서 걷도록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습비가 개인계좌로 관리되기에 별도의 회계감사는 불가능한 상태다.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한 접근성 역시 폐쇄 커뮤니티에만 게재돼 일부만 열람할 수 있는 상

태다. 의명을 요구한 연극트랙 학생은 “동기들끼리 걷은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공연 후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정기공연이 끝나고 난 후 공연과 정과 결산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고 학과 카페에도 올린다”며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학인 결과 정기공연을 위해 만들어진 네이버 카페에 통장내역과 결산안을 공개하고 있었지만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애초에 정기공연에 참여하는 학생들끼리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 만든 카페이기 때문이다. 계시물의 조회수 또한 7회에 그쳤다. 공연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카페에 결산안이 올라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가능성성이 다분하다. 의명을 요구한

한 학생은 “학과 사람들이 모두 있는 공지 채팅방에 ‘카페에 결산안이 올라와 있다’고 공지받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기공연을 하고 남은 돈의 행방도 알기 어렵다. 김 회장은 “2학기는 뮤지컬이기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1학기는 연극을 올려 예산이 남기도 한다”며 “남은 돈은 저축통장에 입금하고, 이후 학교에서 살 수 없는 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은 돈을 따로 모아놓는 통장 또한 씨어터오픈장 개인 명의이다. 2개의 통장이 있기 때문에 잔금처리가 복잡해지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정현근(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생들로부터 걷는 돈은 사실 공식적인 예산이나 다름이 없어 학생 개인 계좌로 받는 것은 계좌 관리의 문제점에서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며 “돈이라는 것은 항상 투명해야 하고 명확해야 한데 불투명하게 운영을 하다보면 비리도 끼고 사고도 터질 수 있기 때문에 학과 공식적인 계좌로 돈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과 김학민(연극영화학) 교수는 “불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시 학과 사무실로 통해 걷는 방법도 논의 중”이라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정에 산적한 이승민 계장은 “학과 사무실을 통해 걷는다 해도 이를 교비에 편입시켜 교비카드를 통해 사용할지 말지는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선택에 따라서는 과 사무실을

통해 걷는 방법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를 미지수인 것이다.

지난해 경영대학 학생회가 처음으로 개설한 법인 통장 사례를 참고해볼 만 하다. 경영대학 학생회는 지난해 단과대 학생회 최초로 법인 통장을 개설했다. 법인 통장의 경우 다음 학생회에게 물려줄 수 있어 회계처리가 투명해지고, 배임의 문제도 방지할 수 있다. 학생과 학생회 사이에 가장 중요한 믿음을 만들기 위해 예산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경영대학 학생회 최상현(경영학 2012) 전 회장은 “법인 통장을 개설하면 학생회로 돈을 납부할 때 훨씬 더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법인 통장을 개설한 이유를 밝혔다. 경영대학의 경우 재학생 수는 2,400명으로, 작년 기준 신입생 오티 참가비를 위해 걷는 돈만 3,000만 원 정도로 규모가 큰 단과대학이다. 연극영화학과가 1년에 4,000만 원을 걷는 것과 맞먹는 규모다.

현재의 주먹구구식 행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충분히 불만을 야기 시킬 수 있어 보인다. 김 회장은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애석하리만큼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적인 제작비를 걷는다”며 졸업공연을 위해 돈을 걷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학기 졸업 패션쇼를 진행한 의류디자인학과에 경우 학생들로부터 돈을 걷었지만 장부 공개를 투명하게 했다. 어쩔 수 없이 걷어야 하는 돈이라면 운영방식의 개선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시급해 보인다.

졸업공연 위한 공연제작실습비 … 타대 연영과는?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국제】 서울 주요 사립대 연극영화학과(연극트랙/전공) 중 우리학교 연극영화과 연극트랙만 졸업공연(정기공연)을 위해 1~4학년 재학생들로부터 돈을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생이 지출해야 하는 금액은 한 학기당 28만 원에 달한다. 타 대학이 모든 공연비용을 교비로 지원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서울권 연극영화학과가 있는 대학 중 졸업공연을 하는 6개 대학(국민대, 동덕여대, 성균관대, 세종대, 중앙대, 한양대)을 대상으로 ‘졸업공연을 위해 걷는 돈’을 조사했다. 그 결과 우리학교만 졸업공연비 명목으

로 돈을 추가로 지출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외의 소품비를 걷는 학교는 세종대와 국민대다. 세종대 관계자는 “교비에서 기본적인 실험실습비는 제공받지만, 더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 졸업반 학생만 자발적으로 추가금을 걷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8만 원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을 걷는다”고 답했다. 국민대의 경우 “필요시 소품비 명목으로 걷는다”고 답했다.

한양대의 경우 매 학기당 만들어질 공연 개수를 정하고 대학본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학교에서 학생 1인당 공연에 필요한 금액을 책정해 예산을 내려주는 형식이다.

중앙대 역시 학과에서 공식적인 예산이 내려오고, 그 예산에 맞춰서 공연을 진행하기

때문에 추가로 걷는 비용은 없다.

우리학교 연극영화학과 역시 정기공연을 위한 실험실습비 명목으로 1년에 6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여기에 장바구임비 명목으로 300만 원 가량을 지원받아 수업 중 필요한 장비 구입과 수리에 사용한다. 연극영화학과 사무실 신정숙 조교는 “1년에 600만 원의 지원비로 학생이 설치할 수 없는 기자재, 학교에 없는 기자재나 전문가가 필요한 장비를 대여하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연극트랙 학생회 김현실(연극영화학 2014) 회장은 “뮤지컬의 경우 음향기기 대여료로만 600만 원이 필요하다”며 “공연제작 이외에도 들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지원비로만 공연을 제작하기는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타 대학과 비교해 우리학교 연극영화과의 두드러진 문제는 확정된 예산이 없다는 것이다. 씨어터오픈장 김태윤(연극영화학 2015) 씨는 “가예산을 짜긴 하지만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바뀌기 때문에 확정짓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확정된 가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연에 참가하는 인원에 예산을 맞춰 걷을 수 없어 28만 원씩을 일괄적으로 걷어 공연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8만 원의 책정기준 또한 모호하다. 김 씨는 “예전에는 조금 더 비쌌는데, 조정해오다가 현재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계속 그렇게 걷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규모를 크게 하는 졸업공연은 보통 업계 관계자들이 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극영화학과 연극트랙의 졸업공연 경우 그러한

〈졸업공연비 재원 마련 현황〉

대학명	학과 지원 외 걷는 돈	비고
국민대	△	소품비 필요 시
동덕여대	X	
성균관대	X	
세종대	△	4학년만 필요 시
중앙대	X	
한양대	X	
경희대	O	1~4학년 재학생

목적성과 멀다. 의명을 요구한 학생 A 씨는 “돈이 부족하면 예산에 맞춰 졸업공연을 진행하면 되는데, 일부러 규모를 크게 하려고 추가로 돈을 걷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2018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신입학 정시전형 모집 안내

구분	일정	내용
①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2017. 10. 12(목) 10:00 ~ 18(수) 17:00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uwayapply.com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 ■ 100%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 수험표는 면접고사 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출력·보관 후 전형당일 지참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2017.10.18.(수) 17:00 도착분까지 인정) ■ 방문 제출은 토요일, 일요일 제외
② 서류 도착 확인	2017. 10. 13(금) 10:00 ~ 19(목) 17:00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uwayapply.com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 로그인 → 내원서보관함 → 접수 원서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글릭 → 오른쪽 중앙 ‘서류도착 확인’ 배너에서 조회 또는 http://gskh.khu.ac.kr (대학원 홈페이지) ■ 서류도착 여부 및 누락서류 지원서가 직접 확인
③ 전형일시	2017. 11. 11(토)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과별 전형장소 공지 예정일 : 2017. 11. 9(목) ■ 공지방법 :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 ■ 전형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수험표 지참
④ 합격자 발표	2017. 11. 24(금) 15:00	대학원 홈페이지 http://gskh.khu.ac.kr
⑤ 합격자 등록	2018. 1. 6(월) ~ 12(금) 16:00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고지서의 KEB하나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 자세한 사항은 합격자 공지사항으로 추후 안내함
⑥ 기타 사항		<p>※ 전형료 안내 내국인 전형 - 석사 : 75,000원, 석박통합/박사 : 85,000원, 예체능계열 : 95,000원(수수료 포함) 외국인 전형 - 전과정 : 127,000원</p> <p>※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입학 관련 모든 안내는 본 대학원 홈페이지 (http://gskh.khu.ac.kr-커뮤니티-공지사항)에 전체 공지됩니다. (지원자 개별 공지 없음)</p>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학년도 전기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기간 : 2017.10.23(월)~10.30(월) 17:00

●원서접수방법 : 온라인접수(<http://www.uwayapply.com>)

●모집전공

구분	일정	내용
서울캠퍼스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행정, 박물관·미술관교육, 보건교육,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상담심리	영양교육, 유아교육, 국어교육, 물리교육, 미술교육, 상업교육, 생물교육, 수학교육, 역사교육, 영어교육, 음악교육, 일본사회교육, 화학교육
국제캠퍼스	교사리더십, 초등영어교육, 실용음악교육, 평생교육	수학교육, 영어교육, 중국어교육, 디자인교육, 체육교육, 유아교육

●지원자격 : 4년제 대학졸업(예정자) 및 동등한 자격이 있는자

- 단, 양성과정의 경우 학부전공과 지원하는 본 대학원 전공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관련학과 34학점 이상 이수자 및 기본이수과목 3과목(분야) 이상 이수자, 국어교육 2분야 이상, 상업 교육 4분야 이상)

- 그 외 전공별 세부지원자격은 모집요강을 참고

●전형요소 : 서류, 필기, 면접 등

- 경희대학교 졸업생의 경우 동문장학금 지급
- 양성과정의 경우 중등학교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

●특전

- 경희대학교 졸업생의 경우 동문장학금 지급
- 양성과정의 경우 중등학교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

●문의처

- 서울캠퍼스: 02-961-0135~6

- 국제캠퍼스: 031-201-2021~2

- 홈페이지 <http://edu.khu.ac.kr>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